

히다 유이치 속·극히 사적인 시민운동 기록<그 2> 히로시마에서 피폭된·손 진두 씨의 재판



●
1970년 12월 3일, 손진두 (孫振斗) 씨는 부산에서 사가현 가라쓰 (佐賀県唐津)로 왔습니다. 그은 "밀항자"입니다. 잡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오무라 수용소 (大村収容所)로 보내져 추방됩니다.

그러나 손씨는 신문사가 알게 되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나는 원폭 생존자이고, 원래의 몸으로 돌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 신문 기자는 나중에 히로시마 시장이 된 히라오카 다카시 (平岡敬) 씨 등이다. 손 씨를 지원하는 그룹이 후쿠오카 (福岡), 나가사키 (長崎) 히로시마 (広島), 오사카 (大阪), 교토 (京都), 도쿄 (東京)에 생겼다. 전국 연락망 형태의 조직도 만들어졌다. 내 방에는 각 지역 지원 그룹의 뉴스 등이 꽤 남아 있었다. 약 15년 전, 당시 오카야마 대학 (岡山大学)의 타가야 사치 씨가 보고 싶어 해서 박스째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모두 PDF 파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PDF

파일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리기 쉬워지므로, 그때쯤 "록코 아카이브"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다.

교토 그룹은 당시 학생이었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씨 등이다. 지금은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구조하는 시민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는 그 시민회의 50 주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시민회의 초창기」

시민회 50 년, 벌써 반세기 전 일이네요. 저는 학생 시절에 손진두 씨의 지원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연속이었을까요, 시민회의 초창기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토요시(元吉) 대표가 고베(神戸) 쪽에 있었고, 고베에서의 회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의 중심 멤버였던 마츠이 요시코(松井義子) 씨, 세키토 히토시(関藤仁志) 씨 등이 무교회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키토 씨는 고베 학생 청년 센터(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와도 관련이 있는 분으로, 개인적으로는 제 중매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 집도 세키토 씨가 소개해 준 아파트로, 도보 1 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민회 뉴스는 인쇄소에 대한 적절한 의뢰였고, 지금의 컴퓨터 인쇄와 달리, 교정은 같은 단어 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임시 인쇄된 뉴스 위에 셀로판 종이를 놓고, 당시 아사히 신문의 젊은 기자였던 오다가와 코우(小田川興) 씨가 능숙한 손으로 교정했습니다. 오다가와 씨의 집에서 죠학카이(猪八戒) 씨와 함께 족발을 먹은 것도 기억합니다.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씨 등은 당시 손진두 지원 운동의 교토(京都) 그룹에 있었고,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손진두 재판에도 함께 가셨던 것일까요? 한국원호협회 신영수(辛泳洙) 씨, 곽귀훈(郭貴勳) 씨와 만날 기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곽귀훈 씨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전단이

있어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2022년 4월 12일)

저는 손진두 지원 오사카 그룹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연락처는 오사카 주소(大阪十三) 다나카 히로시 (田中裕) 씨 댁입니다. 히로시 (田中宏) 씨가 아닙니다. 회의는 한큐. 하토리 (阪急電車服部) 역 근처 U 씨의 아파트에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있었습니다. 숙박을 하기도 했지만, 고베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고베시 다루미구 다몬다이 (神戸市垂水区多聞台)에 살고 있었습니다. JR 마이코 (舞子) 역에서 버스로 20 분. 마지막 버스가 9 시쯤이어서 갈 수 없을 경우, 이시야가와(神戸市石屋川)의 무쿠게 모임 호리우치 미노루 (堀内稔) 씨의 아파트에서 묵었습니다. 많을 때는 주 3회 정도 묵기도 했습니다.

손진두 재판은 두 가지였다. ① 강제 송환을 막는 것, ② 원자폭탄 수첩을 받는 것. ①은 조금 복잡하지만, 재판 중에 강제 송환되면 곤란하므로 '집행정지' 재판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①은 일반적으로 이길 수 없다. 손진두 씨의 경우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강제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관계는 좀처럼 설명하기 어려워 이 에세이에서는 생략한다. ②가 본래의 목적의 재판이다. 원자폭탄 수첩은 피폭 사실을 증명할 두 명의 증언이 필요하다. 친척은 안 된다. 손 씨의 경우에는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후생성 (厚生省)은 "밀항자는 안 된다", "일본에 주소가 없으므로 안 된다"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1975년 7월 7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 손 씨가 이겼다. 나는 그 재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재판을 참관했다. 오사카 그룹에서 평일 재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인 나뿐이었다. 교통비는 회에서 절반을 지원받았다. 이전 에세이에서 쓴 무카이 다카시 (向井孝) 씨의 '티켓'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다. 게다가, 나만의 독창적인 '열차 무임승차'에도 성공한 적이 있다. 독창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에세이 '열차,

'탈까 말까' (2024년 10월)에 썼다.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 뭐를 써도 되겠지?

손진두 재판은 1971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칸센이 없었습니다. 야간 열차로 귀가할 때는 시모노세키 (下関) 까지 가서 역 뒤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탄 적도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며 맥주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모기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신칸센이 생긴 이후로, 오사카와 도쿄 그룹이 함께 그것을 타고 돌아간 적도 있다. 다나카 히로 선생님도 함께였다. 당시에는 식당차가 있었다. 모두 함께 카레를 먹었다. 커피만은 다나카 히로시 (田中宏) 선생님이 사주었다. 다나카 선생님은 모든 일에 합리적인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것이 매우 좋았다. 카레는 각자 계산했다. 또 다른 키셀 승차 때, 식당차 가장 안쪽 좌석에서 벼틴 적도 있다. 화장실에서도 벼틴 적도.



후쿠오카 (福岡) 그룹의 중심 인물은 이토 루이 (伊藤 ルイ) 씨입니다. 오스기 사카에 (大杉栄) 와 이토 노에 (伊藤野枝) 의 딸입니다. 1996년, 루이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추도문집에 저도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하카타 인형 (博多人形) 용붓을 받고

루이 씨를 만난 것은, 손진두 씨의 재판이 시작된 후였기 때문에, 1971~72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재판 때마다 후쿠오카 법원에 나가, 이런 활동가? 아줌마가 있구나 하며 루이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잡지 『조선연구』에 손 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긴 논문을 쓰셨을 때, "편지 형식으로밖에 쓸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도 떠오릅니다. 루이 씨가 오스기 사카에와 이토 노에의 자녀라는 것을 친구에게 들은 것은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몇 번 루이 씨의 작업장에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타테칸(입간판)'을 잘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인형용 붓을 하나 주셨습니다. 인형용 붓이 특별하다는 설명도 들었지만, 그 내용은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서예 시간에 쓰던 것처럼 큰 붓이었는데, 매우 탄력이 강한 붓이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붓이지만 대붓처럼, 그리고 때로는 진짜 대필붓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붓이었습니다. 고베 학생 청년 센터（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의 집회 현수 등도 계속 그 붓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튼튼한 인형 붓도 결국 사용 수명이 다해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루이 씨의 책을 읽고 있는데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손진두 씨를 지원하는 시위. 제 구호가 간사이（関西） 사투리로 아주 좋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십 대 후반이 된 저지만, 70년대 청춘 한복판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고베에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셔서 여러 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루이 씨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후, 미노오 충혼비 소송（箕面忠魂碑訴訟） 관련으로 학생 센터에 들려 주셨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루이 씨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월 27일에도 다른 일정으로 후쿠오카에 갔지만,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루이 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후쿠오카 중부 교회（福岡中部教会）에서 열린 추도 모임에 참가하여 아리카와（有川） 목사님으로부터 5월 말경 루이 씨의 투병 모습을 들으면서, 그것도 좋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문병 온 친구를 만나면 그

후에 봄이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히다 씨의 글은……」라고 루이 씨에게 말할 것 같은 추모문이 되었습니다. 「히다 씨……」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언젠가, 잘 되어 천국에서, 「어머 히다 씨」「어머 루이 씨」라며 목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시키부구사(偲草) — 이토 루이 추모집』 1977년 1월)



손진두 씨의 원폭 수첩을 들려싼 재판은 1978년 3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상고를 기각했다. 나는 그 후 몇몇 재판에 관여했다. 하지만 승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이 사건뿐이다. 이 승소가 이후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 구제에 큰 힘이 되었다.

히다 유이치 「속·극사적인 시민운동 기록」

<그 2>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손 진두 씨의 재판

2025년 8월 15일 발행

집필·편집·인쇄·발행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657-0011 일본 고베시 나다구 츠루카부토 4-3-18-205

e-mail hida@ksyc.jp
